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 기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Developing Descriptive Metadata Elements of the Contents of Oral History Records: Using Oral History Records of Knit Business in Haebangchon

김 해 인 (Haein Kim)**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3.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비교 분석 |
| 2. 구술기록과 메타데이터 | 4.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내용 영역에 대한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녹취록과 상세목록의 내용적 가치와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내용 요소를 비교하여 18개 요소를 파악한 후, 중복 요소를 제거하여 12개 요소로 정리하였다. 셋째,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 면담을 진행한 구술자 6명의 녹취록에 대한 상세목록을 12개의 요소와 대응시켜 검토하였다. 넷째, 전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 요소 1개를 도출하여 총 13개의 요소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상세' 요소로 구분하여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내용 영역 요소는 구술 내용의 구조와 표현을 지원함으로써 구술기록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escriptive metadata elements of contents of oral history records. First, the meaning of contents in transcripts and detailed interview list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metadata for oral history records, were examined. Second, elements related conten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al history metadata were compared to identify 18 elements, then streamlined 12 elements were set by removing duplicates. Third, 12 elements were compared with detailed interview lists based on transcripts of 6 interviewees who had interviews on knit business in Haebangchon. The result of this study discovered 1 additional element that designated as 'basic' and these were further categorized into 15 element of 'enhanced'. These ele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cope of utilization of oral history records by supporting the structure and expression of that contents.

키워드: 구술 내용, 해방촌, 니트 사업, 메타데이터

Contents of Oral History Records, Haebangchon, Knit Business, Metadata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0742).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
(haein0521@gmail.com / ISNI 0000 0005 1309 383X)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1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97-117,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4.097>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구술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의 기억이 사람의 입을 통해 서술되는 과정이다. Thompson (2002)은 모든 유형의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역사의 원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에 새로운 관점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Sommer와 Quinlan(2018)은 구술기록이 그 시대 민중들의 삶과 가족, 성장 과정, 관혼상례 및 이주 등의 생애사를 포함하고 장인들의 기술, 농업이나 의료 지식 등 특정 분야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암묵적인 지식까지 담아내며, 또한 지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술기록은 풍부하면서도 유일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자료에 담긴 사실과 정보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개별 조직이나 기관에서 많은 구술기록이 생산·수집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주체의 부재로 인해 구술채록 후 구술기록의 장기 보존까지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다행히 구술기록의 축적 및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웹 기반의 검색과 접근, 이용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정연경, 최윤경, 2017).

구술 면담을 진행하면 영상 및 음성파일, 녹취록, 상세목록, 질문지, 면담일지, 개인신상정보, 각종 동의서 등이 생산·수집되고 관련 사진이나 실물 자료 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구술기록에 대한 검색과 접근에 관한 연구는 구

술기록의 각 유형별 서지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구술기록의 메타데이터는 형식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온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기존의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는 주제와 요약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구술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드러냄으로써 검색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술자가 경험한 기억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즉, 역사의 새로운 사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 내용에서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메타데이터는 정보 시스템에서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는 도구로서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충실히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기록물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서도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이호신, 2012). 구술 내용이 메타데이터로 기술되면 원자료의 방대한 양을 직접 확인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리고 구술 내용에는 존재하나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어려웠던 가치 있는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며 주제가 다른 구술기록들의 내용에 포함된 동일한 사건, 인물, 시점 등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관점과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술기록의 기술 및 메타데이터 지침에서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녹취록의 상세목록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개발은 구술 내용의 구조와 표현을 접근점으로 한 검색을 지원

함으로써 구술기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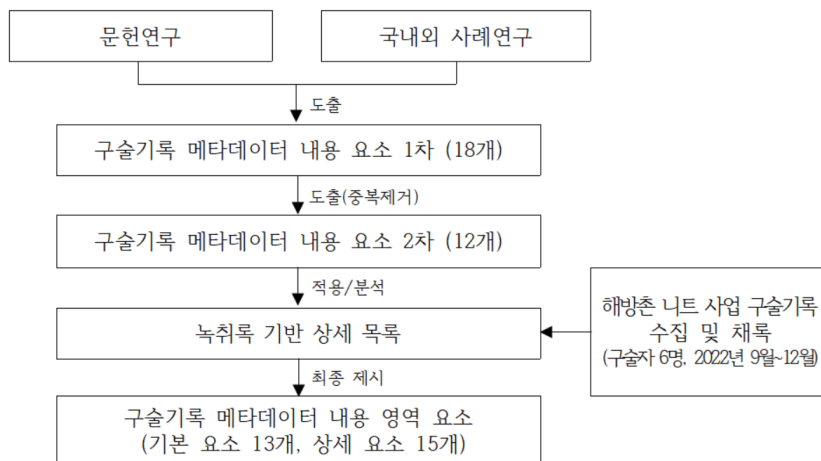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개발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구술기록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녹취록의 의의와 내용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구술기록에 있어서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구성요소 및 특성, 내용 영역 요소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례의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의 요소를 조사하였다. 기존 지침과 표준의 요소들은 자료 및 정보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례 선정 기준은 구술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구술 내용에 대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상세한 기술 및 메타데이터 지침으로 한정하였으며 사례

에서 내용 영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내용 표현을 위한 요소를 확인하여 비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국외의 미국기록협회에서 Matters(1995)가 발간한 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OHCM),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2012)이 발행한 Special Collections Oral Histories Data Dictionary(SC-OHDD), 국내의 정연경과 최윤경(2017)이 개발한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 국립중앙도서관(2022)의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 총 4개의 내용 영역 요소를 종합하여 1차 내용 영역 요소 18개를 도출한 후, 중복 요소를 제거하여 2차 내용 영역 요소 12개를 도출하였다.

셋째, 2차로 도출한 내용 영역 요소를 해방촌 닛트 사업 구술기록에 실제로 적용하여 구술 내용이 표현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 표현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해방촌 닛트 사업 구술기록은 2022년 9월부터 12월 까지 면담자 1명과 구술자 6명의 구술면담을



<그림 1> 연구절차 및 내용

통해 해방촌 다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진술이 음성녹음의 형태로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구술 면담 내용을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술자 6명의 상세목록의 내용과 구술 면담의 내용 요소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상세목록 각 문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문장 내 메타데이터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대응시켰고 대응되지 않는 내용이나 단어는 따로 모아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때 내용과 단어가 개인명이나 사업체의 상호명 등 개인 및 민감 정보를 포함할 경우 분석에는 포함시켰으나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예시에서는 제한을 두거나 제외시켰다.

넷째, 녹취록의 상세목록을 토대로 2차 도출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내용 영역 요소를 적용한 결과, 내용 영역 요소에 대응되지 않지만 표현이 필요한 내용 영역 요소 1개를 추가하여 총 13개의 요소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분한 '상세' 요소 15개와 함께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로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정리와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Matters(1995)는 미국기록협회의 프로젝트로 기록관 및 도서관, 구술을 소장하고 있는 기타 기관에서 구술기록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술기록목록매뉴얼(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 OHCM)을 발간하였다. 현문수(2002)는 음성 및 녹음기록물의 기술특성을 분석하여 기술요소 및 규칙을 제안

하면서 복합 매체로 구성된 구술기록에 대해서는 구술자, 면담자, 구술자의 전기적 배경 등 구술기록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itchie(2003)는 구술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 소장 유무와 위치 설명, 연구에 참고할 기록에 대한 목록, 구술기록이 포함하는 정보 확인을 위한 구술기록의 정리와 기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구술자 신상 배경과 주제어, 내용요약정보에 대한 검색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색인 및 메타데이터, 전자화와 온라인 접근성, 다양한 매체 형식의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 협력과 네트워크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권미현(2004; 2007)은 구술기록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생산된 구술기록과 기증된 구술기록을 구분하고 주제별, 프로젝트별, 인물별, 연도별 정리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구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기술 사례를 조사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Mazé(2012)는 Dublin Core, PBCore, MARC(MARC21, MARCXML),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EAD(Encoded Archive Description), OAI(Open Archives Initiative), MODS(The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METS(Ma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TEL(Text Encoding Initiative) 등을 필요에 따라 구술기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구술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리 및 기술에 대한 관점은 점차 이용의 측면으로 확대되어 구술기록의 활용과 서비스로 연결되었다. 김은영과 강규형(2012)은 구술기록의 정리 목적은 그 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구술기록의 양과 주제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 기록 더미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담겨 여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술기록의 접근성은 다른 기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였다. 김명훈과 한지혜(2013)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체계의 수립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문명준(2017)은 구술기록의 검색, 녹취문 연동, 인덱싱을 제공하는 기관이 1개임을 지적하면서 구술기록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호신(2017)은 구술기록과 녹취록의 관계 분석이 필요하며 녹취록 기반의 연구에서 벗어나 구술기록의 상세목록 및 색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ommer와 Quinlan(2018)은 구술기록의 다양한 활용에 주목하였다. 그는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해설, 창장물인 시·노래·춤·연극 등을 위한 원자료 제공, 인터뷰 요약·색인·녹취록·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과 정보 링크 등을 위한 웹사이트 연동,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서화, 삶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사라져가는 언어의 보존, 역사 교육 자료화, 학술 서적 및 논문의 정보원 제공 등 구술기록의 다양한 활용 가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술기록 활용 가치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검색과 접근 지원을 위한 메타데이터 개발로 이어졌다.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적 관점에서 이정연(2009)은 구술사 기록물을 구조화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모형과 설

계 요소 개발을 위해 ISAD(G)2, DublinCore, PBCore의 기술요소를 분석하고 프로젝트, 관리, 레코드 그리고 관련 레코드 영역으로 구분하여 메타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였다. 정연경과 최윤경(2017)은 한국 근대 여성 구술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색인어와 시소러스를 바탕으로 시스템 기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였다. Mackay(2012)는 구술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체계인 Oral History Core(OHC)를 제안하고, Identifier(식별자), Title(제목), Date(날짜), Interviewee(구술자), Interviewer(면담자), Location(위치), Language(언어), Description(설명), Keywords(키워드)를 OHC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는 구술기록의 통합검색, 다양한 주제와 기간별 검색, 다중 언어 자료 관리 등에 용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 발행된 국립중앙도서관(2022)의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지침은 동영상, 음성(녹음), 녹취문, 이미지(사진), 텍스트(문서), 실물자료 등 관련 생산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술기록의 기술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구술 내용에 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Hunter와 James(2000)는 ABC event-aware metadata model을 제안하였는데 ABC는 Attribute, Boundary, Context의 약어로 속성(Attribute)은 사건에 대한 특성과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사건의 이름, 날짜, 장소, 참여자 등을 의미하고 범위(Boundary)는 사건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의의 부분이며 맥락(Context)은 사건의 추가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문화·정치·사회적 맥락

에 대한 설명이다. 구술기록은 사건 즉,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술기록 콘텐츠를 조직화하는 것은 기록의 접근과 검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이화은(2009)은 구술기록을 기술하는 국내외 기관들의 기술요소를 비교·정리하였다. 비교 결과에서 내용과 구조영역의 상세목록은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단위별로 내용이 달라지며 파일이나 아이템 등의 최하위 단계에서는 구술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테마 또는 구성별로 단락을 구분하여 목차를 생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세목록이 없는 경우 녹음내용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으면 내용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녹취록에 대한 단락별 목차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봉지현과 남영준(2019)은 일본군 '위안부' 구술기록의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개발 시 매체별 개념과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주제를 고려하여 구술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배경 등을 중심으로 내용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개발하여 검색과 접근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주로 영상, TV 프로그램, 뉴스 등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김성희와 임은주(2005)는 멀티미디어 내용 기반 연구에서 메타데이터 표준인 Dublin Core, DIG35, MPEG-7의 내용관련 기술과 표현을 비교 연구하였다. 권혜영 외(2007)는 텍스트일 영상 내용을 문자화하여 메타데이터로 결합시킴으로써 영상 내용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상 내용을 검색하는 시스템 제안하였다. Smith와 Schirling(2006)은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 표준의 생성 및 배포가 필요하고 멀티미디어의 내용, 예를 들어 특정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한 묘사와 같은 설명이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시 다루어져야 하며 내용에 대한 요소는 효과적인 검색과 접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진경과 김희정(2009)은 PB코어와 MBC TV 기록물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TV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적 내용, 지적 자산, 물리적 내용, 확장 내용,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TV 프로그램의 콘텐츠 정보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의 기술 요소를 지적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구술기록의 활용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기록의 유형 및 매체의 복잡성과 면담을 통한 기록화의 특성으로 인해 구술이 담고 있는 내용적 측면을 고려한 검색 및 접근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의 요소 개발을 통해 구술 내용에 대한 표현 및 접근·검색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구술기록과 메타데이터

2.1 구술기록과 녹취록

개인의 경험이 기억을 거쳐 사람의 입을 통해

재현되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술기록이다. 한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는 역사의 결핍과 결락을 메우고 해석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구술기록은 면담의 앞뒤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쳐 여러 유형과 형태의 자료로 수집·획득된다.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기록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목적으로 현대사와 도시 산업의 모습을 지닌 해방촌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이었던 니트 산업의 모습을 기록화하였다. 서울 용산 지역에 위치한 해방촌은 해방 이후 평안북도 신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집결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남대문과 동대문이 인접한 효과에 힘입어 1960년대부터 니트 사업이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주민의 70%가 니트업에 종사하며 전국 유통물량의 30%를 생산하였다. 1990년대까지 해방촌 내 니트 공장은 300여개가 있을

만큼 사업이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상당수가 해외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20여개의 업체만이 해방촌 니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 면담은 해방촌에서 최소 3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접 니트 사업체를 운영한 5명과 니트 사업 활성화에 힘쓴 민간관계자 1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구술자 정보와 면담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술자 6명과 진행한 구술 면담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기록이 생산되었고 그 각각의 유형과 내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구술기록은 <표 2>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수집·획득된 자료 전체를 의미한다.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 면담의 내용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 형태로 수집되었고 면담 종료 후 면담에 참여한 면담자와 보조 연구원이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녹취록과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검토하였다.

<표 1>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기록의 구술자·면담자 및 구술 면담 결과

구분	출생년도	성별	간략정보	녹음 시간	녹취록 (페이지)	상세목록 (페이지)
구술자1	1985년	여자	(전)니트패션협동조합 사무국장, 타지역 거주	3시간 31분	122	4
구술자2	1964년	남자	니트업 종사 및 사업체 운영(30년), 해방촌 거주(30년)	4시간 14분	159	7
구술자3	1953년	남자	니트업 종사 및 사업체 운영(47년), 해방촌 거주(48년)	3시간 34분	89	4
구술자4	1956년	남자	니트업 종사 및 사업체 운영(40년), 해방촌 거주(40년)	2시간 50분	89	2
구술자5	1955년	남자	니트업 종사 및 사업체 운영(50년), 폐업, 해방촌 거주(50년)	3시간 15분	119	7
구술자6	1960년	남자	니트업 종사 및 사업체 운영(40년), 해방촌 거주(30년)	2시간 33분	101	5
면담자1	1963년	여자	대학 교수	전체에 포함	전체에 포함	전체에 포함

〈표 2〉 해방촌 닛트 사업 구술기록 유형

유형	내용
연구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구술 목적 및 면담 계획, 수행 결과
신상카드	구술자 및 면담자 개인 정보(생년월일, 가족관계, 학력 등)
질문지	문헌 및 방문조사, 사전면담을 통해 작성된 면담 질문
음성 녹음	디지털로 녹음된 면담 내용
녹취록	녹음된 면담 내용을 문자로 채록한 문서
상세목록	면담 내용을 목차별로 요약한 문서
면담일지	면담 후 면담자가 작성한 회고문
동의서 및 확인서	연구참여설명문, 구술 동의서, 개인 및 민감 정보 수집동의서,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 감독 확인서
행정서식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승인서, 비용처리 증빙서류
사진 자료	면담 및 현장 사진

녹취록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언어를 문자로 옮긴 2차 자료이다. 표정, 호흡, 몸짓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구술 텍스트에 담긴 역사·사회·문화·정치적 내용이 풍부한 정보자원으로써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녹취록은 새로운 역사쓰기와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주요한 재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녹음에 담긴 내용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에 비해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녹취록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세목록이나 색인이 필요하며 구술 기록이 포함한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원문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을 지닌다. 녹취록의 상세목록은 구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목록으로 긴 시간의 면담 내용을 구분하고 각 부분별로 핵심 요약을 수록하여 구술 내용의 이해와 접근을 돕는 녹취록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키워드 및 주제어, 사건,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한동현, 2011).

2.2 구술기록의 메타데이터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수집된 구술기록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구술 기록의 이용과 보존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메타데이터는 해당 정보를 설명하고 기술하여 검색할 수 있게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정보이다. 구술기록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 작성은 수집기관 내 데이터를 구성하는 도구이며 외부 기관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Mackay, 2012).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목적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술기록 메타데이터를 설명하고 유형화함에 있어서 구술사협회(Oral History Association, OHA)는 면담을 기록한 컬렉션의 정리 및 선별, 검색 및 탐색, 관리를 위한 필수사항인 구술 기록 메타데이터를 설명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기술 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 구조 메타데이터(Structural metadata),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ackay(2012)는 수집된

〈표 3〉 구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목적

목적	설명
유연성	모든 자원에 대한 설명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용
확장 가능성	모든 규모나 범위의 구술기록 목록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
	녹음 이전 방식의 구술기록 수용
	미래의 필요성 및 기능을 예측하여 적용
수용성	모든 역사적 상황, 언어, 다중 표현, 문화적 맥락, 권한에 대한 규정 포함
	모든 형식 및 사본에 대한 수용
상호교환성	데이터 간의 공유와 매핑이 가능하도록 설계
용이성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쉽게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
관계 설명성	기관, 프로젝트, 면담, 시리즈, 포맷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

출처: MacKay, N. (2012). Oral history core: an idea for a metadata scheme. In Oral History in the Digital Age. Washington D.C.: 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 p.2. 내용 재구성

정보의 소스와 기능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설명(Descriptive), 관리(Administrative), 보존(Preservation), 기술(Technical), 권한 및 접근(Right and Access)에 대한 메타데이터 유형이 구술기록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Mazé(2012)는 구술기록의 메타데이터 유형을 설명(Descriptive), 관리(Administrative), 기술(Technical), 인증 및 보안(Authentication and security), 보존(Preservation), 구조(Structural), 6가지로 구분하고 설명 메타데이터를 기본(Basic)과 상세(Enhanced)로 세분화하였다. ‘기본’은

구술기록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며 ‘상세’에는 구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주석, 본문 태깅, 내용 분석 수단과 같은 메타데이터 요소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상세’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구술 기록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정보 전문가와 이용자 모두가 면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그림 2〉로 정리하였다.

‘설명 메타데이터’는 전통적인 목록 작성과

구분	OHA(2023)	Mackay(2012)	Mazé(2012)	종합	
메타데이터 유형	설명	설명	설명_기본	▶	설명_기본
			설명_상세		설명_상세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구조		구조		구조
		보존	보존		보존
	권한 및 접근	인증 및 보완	인증 및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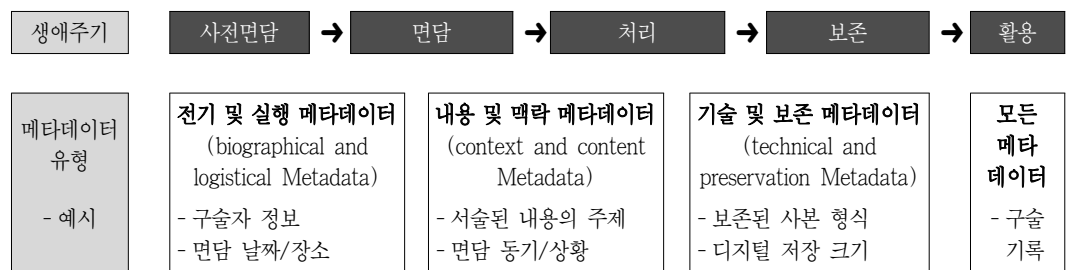
〈그림 2〉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유형 구분

연관성이 높은 부분으로 면담자 및 구술자 이름, 면담 날짜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내용 요약, 주제어, 목차 및 설명 등 구술 내용에 대한 기술로 각각은 기본과 상세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 메타데이터’는 면담 내용이 포함된 매체와 파일을 구성하는 기술 정보인 파일 형식 및 크기, 해상도 등을 말하고 ‘관리 메타데이터’는 출처 및 획득 정보, 물리적 위치, 디지털화 범위 등에 대한 요소를 갖는다. ‘구조 메타데이터’는 구술기록의 여러 자료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유용한 요소로 다양한 형식의 녹음 및 영상, 녹취록, 색인, 시간 정보 간의 연결 관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적 측면을 나타낸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이나 새로운 포맷 등과 연관되는 보존 주기 및 처리, 그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인증 및 권한 메타데이터’는 저작권, 사용 권한 및 접근 제한 등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2020년에 구술사협회 메타데이터 프로젝트팀(Oral History Association’s Metadata Task Force, OHA-MTF)은 구술기록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접근을 포괄적이고 세심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

고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고 생성함에 있어서 구술기록의 특성, 임무와 목표, 자원의 균형적 접근 방식과 구술기록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메타데이터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OHA-MTF는 구술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획득되는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그림 3>과 같다.

이처럼 구술기록이 생산, 수집되는 과정에서 구술된 내용을 담은 매체, 그 내용을 획득, 보존, 활용하기 위한 제반 문서,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결과물 등 여러 유형 및 형태의 기록이 생산·획득된다. 이들의 총체가 하나의 구술기록이며 지금까지의 메타데이터 기술은 구술기록을 담은 외형적인 부분과 그 관계, 관리와 보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 관리·보존하고자 하는 구술기록의 핵심은 서사된 이야기 즉, 구술 내용이다. 구술기록은 문헌기록에 비해 주관적이고 서술적인 기술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메타데이터가 다루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구술 내용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 및 메타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이정연, 2009).



<그림 3> 구술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메타데이터 유형

출처: Kata, L., Jaycie Vos, N., & Sielaff, S. (2020). Oral History Metadata and Description: A Survey of Practices. TX: Oral History Association. pp.8-9. 내용 재구성

3.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비교 분석

3.1 국외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비교

3.1.1 OHCM(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

OHCM은 구술기록 목록 작성을 지원하고자 미국기록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 프로젝트를 통해 Matters(1995)가 작성하였고 구술기록의 생산 맥락과 집단적 설명, 기록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기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술 내용에 대한 기술 요소는 주기 영역(Note area)의 범위와 내용 및 요약(Scope and content/Abstract)에서 해당 정보가 구술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표 4>는 OHCM의 구술 내용에 대한 기술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3.1.2 SC-OHDD(Special Collection Oral Histories Data Dictionary)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UW)은 국가 목록화 표준에 따라 대학 내 분산된 캠퍼스와 정보 자원에 대한 통합 자원 관리를 위한 '목록화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Cataloging and Metadata Services, CAMS)' 부서를 두고 있다. 대학의 메타데이터 실행 그룹(Metadata Implementation Group, MIG)은 CAMS 책임자 하에 있는 위원회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검색을 보장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IG에서는 메타데이터 지침, 데이터 사전, UW 디지털 컬렉션 및 저장소, 인코딩 검색도구 등을 개발하며 그중 '데이터 사전'은 메타데이터 요소, 외부 스키마에 대한 매핑 등 데이터 형식에 대한 지침이다.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의 여러 종류의 데이터 사전 중에는 구술기록을 다루는

<표 4> OHCM의 구술 내용에 대한 기술 요소

구분	내용
개별 기록	언급된 지리 영역
	언급된 인물 이름
	내용이 포함되는 시점과 기간
	주제 내용 요약: 사건, 조건, 대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위치 및 날짜 포함)
	표현된 관점과 태도
	구술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의견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 기억
컬렉션 및 프로젝트 기록	서술된 이야기 또는 일화에 대한 주제 및 간략 표현
	언급된 주요 지리 영역
	내용이 포함되는 시점과 기간
	문서화된 주제와 사건
	표현된 주요 관점

출처: Matter, M. (1995). 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pp.43-44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5〉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 SC-OHDD의 구술 내용 관련 기술 요소

구분	내용	기술 방식
노트	다른 항목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예) 내용에 대한 노트, 녹음상황 등	Mr Kumar grew up in a small town of Punjab
언급된 인물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표현한 인물명	Williams, Paul B. Morgan, Murray, 1916-2000
언급된 기관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표현한 기관명	Schipperke Club of America
내용에 포함된 지명/지역명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표현한 장소 및 지역적 위치	Pakistan - Lahore
언급된 시점/기간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표현한 시점 및 기간	1986-1990
녹취록 색인	내용 목차	Topics presented in order of discussion on recording More on civil rights and local activism. - Phone rings in the background - Made presentation to Jim Ellis. - Federal case involving racism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 Nixon Administration. - 1989 Supreme Court case about employment and racism
장르	미의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에서 선택	Oral History
키워드	적절한 주요 용어	helicopter plane crash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2012). Special Collection Oral Histories Data Dictionary(2023/10/13)
<https://www.lib.washington.edu/cams/mig/datadicts/special-collections-oral-histories-data-dictionary> 일부
 재정리

SC-OHDD가 있고 그 중 구술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지정된 요소와 기술 방식을 〈표 5〉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SC-OHDD를 CONTENTdm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매핑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CONTENTdm은 기관의 컬렉션을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텍스트,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지원하고 메타데이터 정의 및 관리를 통한 이용자 검색을 지원한다. 또한 자료 항목별 저작권, 액세스 제어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3.2 국내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비교

3.2.1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

정연경과 최윤경(2017)은 구술 아카이브 관리를 위해 구술기록을 녹취록, 동영상, 음성, 텍스트, 이미지 파일 등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메타데이터 요소와 기술 방식을 정리하였다. 그 중 '주제어', '초록'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구술로 서사된 내용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입력 지침에서는 목차 태깅을 따로 두어 구술기록에 대한 기술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차 내용', '목차 장소', '목차 시대', '목차 사건'은 구술 기록의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에서 구술된 내용에 대한 요소는 〈표 6〉과 같다.

〈표 6〉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의 구술 내용에 관한 요소

구분	요소		설명
자료 유형별 (공통)	주제어	통제어	근대 여성 구술사 시소러스에 등록된 용어를 검색하여 입력
		비통제어	연구자가 주제어 입력 지침을 참고하여 입력
	초록		200~300자 내외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목차 태깅	목차 내용	해당 부분의 핵심 내용 간단하게 입력	
	목차 장소	해당 부분 내용과 관련된 특정 장소를 명사로 입력	
	목차 시대	해당 부분 내용과 관련된 특정 시대를 명사로 입력	
	목차 사건	해당 부분 내용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명사로 입력	

출처: 정연경, 최윤경 (2017).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서울: 아르케, pp.36-39, p.103. 재구성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항목에 해당 값을 연동시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전거데이터에 구술자, 면담자, 촬영자, 녹취자, 기증자(기증기관), 기타 및 관리자를 두어 맥락정보의 누락이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자료유형별로 녹취록/음성/동영상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동일하게 하였고 텍스트와 이미지/사진 메타데이터는 구분하였다. 내용 관련 요소로 '목차 태깅'을 따로 두어 목차와 목차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2.2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구술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작성 기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구술자료의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로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구술자료의 콘텐츠화 및 정보검색을 위해 내용의 요약, 목차, 키워드, 주제어를 기술하여 상세한 주제가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에 대한 기술은 계층별, 유형별 메타데이터의 공통 요소로 두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담

고 있는 동영상, 음성, 녹취문, 텍스트 등의 메타데이터 기술 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술기록의 계층과 유형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취사선택이 가능한 장점을 있다. 중복을 최소화하고 취사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술 내용 영역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에서 구술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는 〈표 7〉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를 프로젝트-컬렉션-면담자(기록가)-구술자-구술자료 순서의 계층구조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술자료에는 동영상, 음성(녹음), 녹취문, 이미지(사진), 텍스트(문서), 실물자료가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요소와 요소별 설명 및 예시를 들어 요소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술기록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3.3 비교 분석 및 적용

구술기록의 내용을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종합하여 정리해서 1차 내용 영역 요소(안)을 〈그림 4〉와 같이 도출하였다. 국외의 경

〈표 7〉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의 내용에 관한 요소

구분	설명 및 예시	산출물 수준
내용 요약	주제나 목적을 기술	프로젝트, 컬렉션
초록(요약정보)	200-300자 내외로 자유 서술	구술자료
키워드(자연어)	자연어 키워드를 반복해서 기술	프로젝트, 컬렉션, 구술자(구술정보), 구술자료
주제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선택	프로젝트, 컬렉션, 구술자(구술정보), 구술자료
목차	1. 유년시절 -p.1-3-00분00초-00분00초 2. 나의친구 -p.4-5-00분00초-00분00초	구술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22).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pp.14-27. 재정리

OHCM	SC-OHDD	근대 여성 구술사 메타데이터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빈도)
	노트/메모			노트/메모(1)
인물	인물			인물(2)*
	기관			기관(1)
지리 영역	지명/지리			지명/지리(2)*
기간/시점	기간/시점			기간/시점(2)*
사건				사건(1)
관점/태도/의견				관점/태도/의견(1)
타인에 대한 개인 기억				개인 기억(1)
주제(어)		주제(통제어/비통제어)	주제어	주제어(3)*
주제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2)*
세부 주제	목차	목차	목차	목차(4)*
세부 주제별 요약		목차 내용		목차별 내용 요약(2)*
		목차 장소		목차 장소(1)
		목차 시대		목차 시대(1)
		목차 사건		목차 사건(1)
		초록	초록	초록(2)*
	장르(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			장르(1)
	키워드		키워드(자연어)	키워드(2)*

*는 2개 이상 제시된 내용 영역의 요소

〈그림 4〉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1차 내용 영역 요소(안)

우, 다양한 내용 영역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술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로 도출된 18개 요소의 요소명과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트/메모’는 다른 항목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로 다양한 사적 모임과 같은

내용이 해당되고 ‘인물과 기관’은 면담에서 언급되었거나 중요하게 표현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물과 기관의 이름이며 ‘지명/지리’는 내용에 표현된 사건이 일어난 주요 지리 영역으로 지리적 위치와 장소 유형에 대한 부분이다. ‘기간/시점’은 중요하게 언급되었거나 내용에 포함된 시기, 연도, 시대, 시점에 대한 정보이며 ‘사

건'은 발생되었거나 거론된 사건을, '관점/태도/의견'은 표현되었거나 구술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의견과 주요 관점 및 태도가 기술된 것이며 '개인 기억'은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사적 기억에 해당된다. 또한 '주제어'는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이고 '내용 요약'은 사건, 조건, 대상 및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목차'는 내용에 대한 세부 주제별 구분이며 '목차별 내용 요약'은 목차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을 의미하고 '목차 장소', '목차 시대', '목차 사건'은 목차 내용에 포함된 특정 장소, 시대, 사건에 대한 기술이다. 그리고 '초록'은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축약해서 기록한 것이고 '장르'는 주제명표목표에서 찾아서 기입하는 주제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내용에 포함된 핵심 단어이다.

1차 내용 영역의 요소에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을 확인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중복적 성격이 강한 '목차별 내용 요약', '전체 내용 요약'과 '초록'은 '내용 요약/초록'으

로, '주제어'와 '장르'는 '주제어'로 통합하고 '목차 장소', '목차 시대', '목차 사건'은 각각 '지명/지리', '기간/시점', '사건'에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2차 내용 영역 메타데이터 12개의 요소를 <표 8>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2차로 도출한 12개의 내용 영역 요소를 한 명의 구술자 녹취록의 상세목록에 대응시켜 보았다. 이 구술자는 해방촌에서 40년 이상 가장 오래 거주하고 닛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닛트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및 협회 등에 대표로 참여해 온 사람으로 그의 상세목록을 토대로 내용 영역 요소와 해당 면담 내용을 <표 9>로 정리하였다.

나머지 구술자 5인의 상세 목록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고 구술자 6인의 상세목록의 내용 중 12개의 요소에 추가로 수정·보완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세목록 내용의 단어와 문장을 내용 영역 요소에 각각 대응시켰고 대응되지 않는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특성에 따라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소별 속성을 반영하

<표 8>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2차 내용 영역 요소(안)

내용 영역 요소	설명
노트/메모	다른 항목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
인물	언급되었거나 중요하게 표현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이름
기관	언급되었거나 중요하게 표현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기관/조직 이름
지명/지리	내용에 표현된 주요 지리 영역으로 지리적 위치와 장소 유형
기간/시점	언급되었거나 내용이 포함된 시기, 연도, 시대, 시점
사건	발생되었거나 거론된 사건
관점/태도/의견	표현되었거나 구술자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의견과 주요 관점 및 태도
개인 기억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기억
주제어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 주제명표목을 포함
내용 요약/초록	사건, 조건, 대상 및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목차	내용에 대한 세부 주제별 구분
키워드	내용에 포함된 핵심단어

〈표 9〉 구술자 1인의 구술 내용 입력 예시

내용 영역 요소	해당 내용				
노트/메모	해방촌 내 친목도모를 위한 조기축구회, 향우회 활동 활발, 교복지유화로 인해 니트 판매 급증, 니트 제조 전문 기술: 편직, 요꼬, 미싱, 오바로크, 아이롱, 샤시				
인물	박근해; 박원순				
기관	니트제조협회; 니트패션조합; 조기축구회; 향우회; OO니트; 이랜드 등				
지명/지리	고향: 공동작업장; 남대문; 남산; 일본; 전남 영광; 해방 상점 등				
기간/시점	1956년; 1972년; 사드 사건; 비수기; 성수기 등				
사건	교복지유화; 기계화; 도시재생지원사업; 코로나19; 결혼; 위암 등				
관점/태도/의견	경기 상승 기대; 니트 산업 전망 어두움; 니트 품질 우수; 역부족 등				
개인 기억	재개발전 해방촌은 누룽집(루핑집), 흙바닥으로 기억함; 집 주인들이 집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다음 사람이 인수함; 계룡 군부대 교회 앞에서 니트 판매해서 큰 수익 올림;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굉장히 좋아했음; 해방촌 니트 판매를 위해 개인들이 천만 원씩 투자하였음				
주제어	구술 기록; 구술사; 지역 구술; 니트; 제조업; 도시 수공업				
내용 요약/초록	1956년 전남 영광 출생. 1972년 상경하여 미아리를 거쳐 1983년 해방촌으로 이주하였음. 약 50년간 니트업에 종사하였고 현재 사업체 OO니트를 운영 중. 2018년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대가 컸으나 코로나19, 니트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자 부족, 인력 노령화 등의 이유로 성과가 없었음. 해방촌 니트 사업은 쇠퇴기라고 생각하고 3~5년 뒤에 폐업할 예정				
목차	1차 면담	1		00:00	성장 과정, 가족, 건강, 여가 활동
		2		03:11	노동정보와 해방촌에 대한 기억
		3		31:26	해방촌과 해방촌 니트
		3	(1)	31:26	해방촌 니트 업체와 본인 사업체
		3	(2)	1:11:39	니트 제작 교육 및 전수
		3	(3)	1:19:09	니트 산업에서 해방촌의 특성
	2차 면담	3	(4)	1:21:14	니트 산업에 대한 의견과 경험
		1		00:00	도시재생지원사업과 니트패션협동조합
		1	(1)	00:00	도시재생지원사업
		1	(2)	15:10	니트 생산 기술과 인력
		1	(3)	21:11	니트패션협동조합
		2		51:11	해방촌 니트의 미래
키워드	해방촌; 니트 제조; 니트 판매; 코로나19; 기계화; 인력 문제				

여 요소명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12개의 요소 중 '인물', '기관', '장소/지역', '기간/시점', '사건', 총 5개의 요소에 매칭 되는 내용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본'과 '상세'로 구분하여 5개의 기본 요소에 대한 12개의 상세 요소를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둘째, 상세목록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과 특성 이지만, 2차로 도출한 12개의 내용 영역 요소로 표현되지 않는 '활동/행위'를 기본 요소에 추가하

였다. '활동/행위'는 인물이나 단체가 행하는 것 이나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요소로 '기능', '분야', '취미/여가'로 세분화되었다. '기능'은 가내 수공업 형태의 니트 제작 공정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 영역의 상세 요소로 추가하였다(〈표 11〉 참조).

이상을 종합한 결과,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의 요소를 기본 요소 13개와 상세 요소 15개로 최종 제안하였다(〈표 12〉 참조).

〈표 10〉 내용 영역 5개 요소의 기본-상세 구분

기본	상세	예시
인물	성명	노식래; 박근혜; 박원순; 전두환
	프로필(약력)	국회의원; 교수; 기술자; 남성; 누나; 대통령; 디자이너; 시다; 시장; 월남인; 이북 사람; 젊은이; 조합원; 통신병
기관	공공기관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암 파출소
	교육기관	방송통신대학교; 직업학교; 한양 여대
	영리단체	OO니트; 선경; 시마세이키(일본); 이랜드; 한섬
	비영리단체	니트패션협동조합; 어울림; 조기축구회; 향우회
장소/지역	장소	공장; 땡가게; 고향; 남대문; 숙소; 카페; 해방 상점
	지역	경남 함양; 동남아; 미아리; 중국; 해방촌
기간/시점	기간	성수기; 봄; 비수기
	시점	1956년; 2000년대
사건	공통	고령화; 교복자율화; 기계화; 마중물 사업; 원자재 가격 상승; 주차난; 코로나19; IMF
	개인	결혼; 군대 제대; 상경; 위암; 취직; 폐업

〈표 11〉 내용 영역 추가 요소: 활동/행위

기본	상세	예시
활동/행위	기능*	바느질; 미싱; 샐시; 세팅; 요꼬; 아이롱; 편직; 홀가먼트
	분야	디자인학과; 니트 산업; 섬유학과; 요식업
	취미/여가	당구; 새벽 걷기

* 니트 사업 관련 특수 요소

〈표 12〉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 최종안

기본	상세	기본	상세
1. 노트/메모		6. 사건	6.1 공통
2. 인물	2.1 성명		6.2 개인사
	2.2 프로필(약력)		
3. 기관	3.1 공공기관	7. 의견/감정	
	3.2 교육기관	8. 개인 기억	
	3.3 영리단체		
	3.4 비영리단체		
4. 장소/지역	4.1 장소		9. 활동/행위
	4.2 지역	9.2 분야	
		9.3 취미/여가	
5. 기간/시점	5.1 기간	10. 주제어	
	5.2 시점	11. 내용 요약/초록	
			12. 목차
		13. 키워드	

4. 결 론

구술기록은 개인의 일상적 기억을 통해 한 시대의 맥락과 사건을 사람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 자료이다. 구술된 경험적 이야기에는 특별한 사건과 사회적 변화, 문화와 전통, 직업과 기술의 발전, 가족의 모습,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소수자들의 관점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구술 내용은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문학작품이나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의 자원으로써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구술 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구술 기록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표현함으로써 검색과 접근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구술 내용에 담긴 정보에 대한 검색과 접근의 기반이 되는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술기록과 녹취록 및 상세목록, 메타데이터의 개념을 파악하고 내용의 목차와 목차별 핵심 요약인 상세목록을 메타데이터 내용 요소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외 구술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례를 비교·정리하여 1차로 구술 내용관련 메타데이터 요소를 18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중복 요

소를 통합·정리하여 2차로 도출한 12개의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를 해방촌 닷넷 사업 구술 면담 녹취록의 상세목록 내용에 하나씩 대응시켜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2차로 도출한 내용 영역 요소에 1개의 요소를 추가하여 총 13개 요소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15개 요소를 '상세'로 부가한 구술 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를 최종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구술기록에 대한 관점을 구술기록의 내용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구술 내용 안에 담긴 정보자원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개발한 구술기록 메타데이터 내용 영역 요소는 구술 내용이 담고 있는 인물, 사건, 시점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요약, 주제어, 목차 등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구술기록이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 요소들을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구술기록에 적용하여 메타데이터의 구조 및 요소, 그 이용 지침에 대한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영역 메타데이터 요소와의 연동 및 시스템 적용, 색인어·시소러스 등의 통제어휘와의 연계, 이를 통한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2).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44.

-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303-339.
- 권혜영, 김근하, 김하얀, 이경미, 박우창, 이은옥 (2007). 텍스트일 영상의 내용과 메타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검색.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4(2), 465-469.
- 김명훈, 한지혜 (2013).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수립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6, 153-193.
- 김성희, 임은주 (2005). 멀티미디어 내용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365-387.
- 김은영, 강규형 (2012). 구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방안 연구: 논리적 정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5, 229-257.
- 문명준 (2017). 구술기록의 온라인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봉지현, 남영준 (2019). 일본군 '위안부' 구술기록의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 225-250.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1.225>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63>
- 이진경, 김희정 (2009). 방송 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269-29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269>
- 이호신 (2012). 구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예술사구술채록사업 결과물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3(1), 107-141.
- 이호신 (2017). 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 구술사연구, 8(2), 97-129.
- 이화은 (2009).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정연경, 최윤경 (2017).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서울: 아르케.
- 한동현 (2011). 기획주제: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향토 구술 자료의 자원화 방안-상세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69-98.
- 현문수 (2002). 음성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 73-120.
- Hunter, J. & James, D. (2000). The application of an event-aware metadata model to an online oral history archive. In Research and Advanced Technology for Digital Libraries: 4th European Conference, 291-304.
- Kata, L., Jaycie Vos, N., & Sielaff, S. (2020). Oral History Metadata and Description: A Survey of Practices. TX: Oral History Association.
- MacKay, N. (2012). Oral history core: an idea for a metadata scheme. In Oral History in the Digital Age. Washington D.C.: 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 Available:

<https://ohda.matrix.msu.edu/2012/06/oral-history-core/>

- Matter, M. (1995). *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Mazé, E. A. (2012). Metadata: best practices for oral history access and preservation. In *Oral History in the Digital Age*. Washington D.C.: 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 Available: <https://ohda.matrix.msu.edu/2012/06/metadata/>
- Oral History Association (2023, Oct. 13.). Metadata. Available: <https://oralhistory.org/metadata/>
- Ritchie, D. A. (2003). *Do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J. R. & Schirling, P. (2006). Metadata standards roundup. *IEEE MultiMedia*, 13(2), 84-88.
- Sommer, B. W. & Quinlan, M. K. (2018). *The Oral History Manual*. Nashville: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 Thompson, P. (2002).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In *The Oral History Reader*. NY: Routledge.
- University of Washington (2012). Special Collection Oral Histories Data Dictionary. Available: <https://www.lib.washington.edu/cams/mig/datadicts/special-collections-oral-histories-data-dictionar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ong, Ji Hyeon & Nam, Young Joon (2019). A study on the design of metadata elements for management of oral history archives about sexual slavery by Japan's milit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225-250.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1.225>
- Chung, Yeon Kyoung & Choi, Yooun Kyung (2017).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Digital Archive System for Oral History*. Seoul: Arco.
- Han, Dong Hyun (2011). A study on rendering local culture materials to resources: focused on the detailed post-interview list. *Journal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36, 69-98.
- Hyun, Moon-Soo (2002). A study on the aural archival descrip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e Studies*, 6, 73-120.
- Kim, Eun-young & Kahng, Gyoo-Hyoung (2012). A study on oral history arrangement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cusing on logical arrangement. *The Journal of Asian Cultural Studies*, 25, 229-257.
- Kim, Myoung-hun & Han, Jihye (2013).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e Studies, 36, 153-193.
- Kim, Seonghee & Lim, Eun-ju (2005). The analysis of metadata for representation of multimedia conten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6(4), 365-387.
- Kwon, Hye-Young, Kim, Keunha, Kim, Hayan, Lee, Kyoung-Mi, Park, Uchang, & Lee, Eunok (2007). Image retrieval integrated image contents and metadata.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4(2), 465-469.
- Kwon, Mihyun (2004). A study on archival methodology for oral history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e Studies*, 10, 112-144.
- Kwon, Mihyun (2007).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e Studies*, 16, 305-339.
- Lee, Ho-Sin (2012). Metadata element design for oral history resource: focus on oral history project fo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of arts.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3(1), 107-141.
- Lee, Ho-Sin (2017). Oral history research and record: transcripts and possibilities beyond.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8(2), 97-129.
- Lee, Hwa-Eun (2009). A Study on the Description for Oral Histor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Jin-kyung & Kim, Hee-jung (2009). A study of metadata element design for broadcasting records management-based on the case study of MBC TV program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269-29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269>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odeling meta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63>
- Mun, Myung-jun (2017).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for Oral History Online Services and the Service Evaluation.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Oral History Metadata Guidelin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